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고전 15:50-52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박성조 형제

찬송 ———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 다같이

성경봉독 ——— 빌립보서 4장 1 절 ——— 인도자

설교 ———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 김경현 목사

성찬식 ——— 인도자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3, 4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 목회편지 / 환대와 연대 앞에 길 잃은 공포

부활하신 주님은 왜 곧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사십 여 일 간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셨을까요? 그분이 부활 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주로 하셨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로 하신 일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독이고 쟁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미 닭을 잃은 병아리들 마냥 스승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속절없이 절망하며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감정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세 시간 동안 지켜보던 제자들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로마가 가진 서술 퍼런 권력 앞에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처에 함께 모여 공포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가겠다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들에게 했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권면은 온대 간대 없었습니다. 공포가 우리에게 주는 위력을 제자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밥을 챙겨주시며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실체를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세상이 주는 공포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히려 환대와 연대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상상력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인은 다르더라도 여전히 공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상가는 <유동하는 공포-Liquid Fear>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의 공포를 근대 사회의 고체화된(solid) 공포와 달리 액체화된 공포라 부릅니다. 고체성이란 근대 이전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나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던 세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화 되면서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상대화됩니다.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희미해지고 개인에게 전가되어 현대의 공포는 경계와 형태를 잃은 액체성을 띠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에 내몰린 개인들은 성과주체로서 자신을 소진시켜 가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소속과 연대를 통한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은 소비와 소유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가 소비하는 것이 너다.”라는 소비 사회의 거짓 말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무형의 액체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자기 계발에 몰두하고, 나르시즘적인 자기 표출에 연연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 게시물의 반응과 좋아요의 갯수가 나를 규정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표출에 대한 반응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타자들과 소통과 연대를 위해 시작했던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단절에 대한 공포를 불어 넣고 소통을 왜곡시킵니다. 다른 이들이 규정하는 나를 찾는 이들은 영영 자기를 찾지 못하고 미아가 되 버릴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남기신 40일간의 여정은 액체 근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길 잃은 자들을 찾아가 손잡아 주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이야기를 듣고 수다를 떠는 환대와 연대야말로 유동하는 공포(liquid fear)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안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소비와 소유가 아니라 소속과 연대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나 좋아요 갯수가 아니라 자기 용시를 통한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 기뻐하는 자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유동하는 공포는 연대의 벽 앞에 갈 길을 잃습니다. 형태가 없는 불확실한 공포는 현대의 사람들을 통해 자취를 감춥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